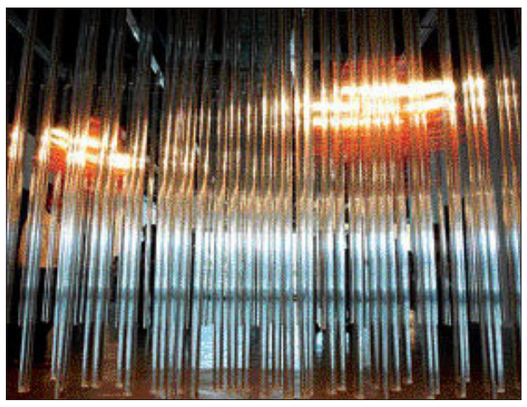
오늘의 작품



■ 수잔 빅터 작 '화려한 술책의 윤곽'

동북아 식민주의 문화 형상화

수잔 빅터(Suzann Victor)의 '화려한 술책의 윤곽(Contours of a rich Manoeuvre2006·1전시관)'은 투명 아크릴 튜브로 만들어진 가림막 안쪽에 설치된 두 개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설치작품이다.

천장으로부터 내려진 가림막은 관람객을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구분하는 경계이며, 부유하는 '감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동북 아시아의 식민주의 문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샹들리에의 실제 모습과 거울에 투영된 샹들리에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함께 보는 게 감상의 포인트.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수잔빅터는 웨스틴시드니 대학을 거쳐 현재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인간의 욕망, 비참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11일)

▲솟대 전시=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개막식에 선보인 솟대 조형물과 다양한 개성의 솟대 50 여점 전시.

▲꽃으로 만나는 비엔날레=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2관. '140만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주전남꽃예술연합회의 꽃꽂이 전시회.

▲전자바이올린 공연=오전 10시·11시, 주 전시관 앞. 카자흐스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아카 미샤(Aka Misha)의 공연.

▲잉카 엠파이어 공연=오후 2시·3시·4시, 빛 카페. 에콰도르와 페루의 연합팀으로 각국의 전통음악 연주.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비엔날레 '튀는' 작품들

2006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4일째를 맞은 가운데 남성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튀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세 미만은 관람불가 '그늘진 삶의 빛'

마이클 엘름그린(독일)과 잉가 드라그세트(노르웨이)의 공동 작품인 '그늘진 삶의 빛'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

독일과 노르웨이 동성애자들의 소외받은 삶을 조명하는 사진 400여점이 전시된 공간이다. 동성애자들의 권리획득이나, 사회적 인정보다는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그늘진 삶의 빛' 전시 공간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나이를 체크하는 도슨트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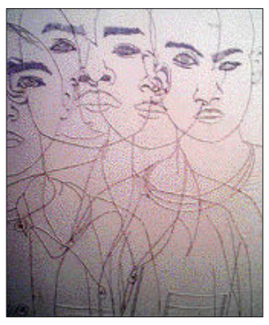
남성 출입금지 '오리지널 라이브 클럽'

임민우(한국)씨의 '오리지널 라이브 클럽'은 남성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여성전용' 전시공간이다. 복사기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복사한 뒤 여성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성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작가는 남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남성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전시장 출입이 자유로운(?)여성들의 입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알리는 이색효과를 노렸다.

이 때문에 오리지널 라이브 클럽 도슨트는 일부 남성 관람객들로부터 '왜 우리들은 못들어가게 하느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도 한다.

꼭 손으로 만지세요 '기억의 감촉'



대부분 전시장에서는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딘큐레(베트남)씨의 작품 '기억의 감촉'은 작품을 만져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인물들을 자수로 새긴 것으로 관람객들이 손으로 작품을 만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연작 7점은 관람객들의 손때가 묻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작가는 크메르 루주 정권에 의해 살해된 캄보디아 인들의 초상화를 수놓음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순태씨 담양에 문학의 집 '생오지' 오픈

최근 정년퇴임한 소설가 문순태(65·전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사진)씨가 자신의 고향인 담양에 문학의 집 '생오지'를 열었다.

문씨는 지난 8일 개관식을 갖고 40년 지기인 소설가 한승원씨를 초청해 '원효를 말한다'를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문씨의 집필실이기도 한 '생오지'는 주소인 담양군 남면 만월리 용연 2구의 옛 이름.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그야말로 '쌩'오지여서 생겨난 이름이라는 것이 문씨의 설명이다. 문씨의 고향은 아랫마을 구산리이며, '생오지'에서 2㎞ 가량 떨어진 인암분교가 모교다.

문씨가 이 곳에 있는 60평 크기의 카페를 인수하고 문학 사랑방을 마련키로 한 것은 연구실과 집에 소장하고 있던 수천권에 달하는 책들을 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책은 문씨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다.

문씨는 앞으로 '생오지'를 단순히 집필실로 사용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둘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작가와의 대화나 시 낭송, 문예 창작교실 등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문씨는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미뤘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을 완간하는 것이 우선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061-381-2405)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초대받지 못한 손님

지난 2003년 봄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 베니스 비엔날레의 축제분위기가 한창이던 이곳에 때아닌 '게릴라 퍼포먼스'가 열렸다. 주인공은 바로 행위예술가인 낸시 랭(27·한국명 박혜령). 벌건 대낮에, 그것도 도심 광장 한복판에서 란제리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녀의 도발적인 행위는 일약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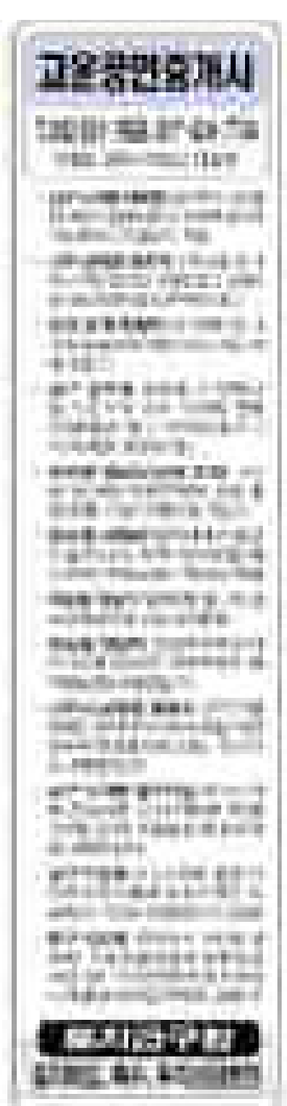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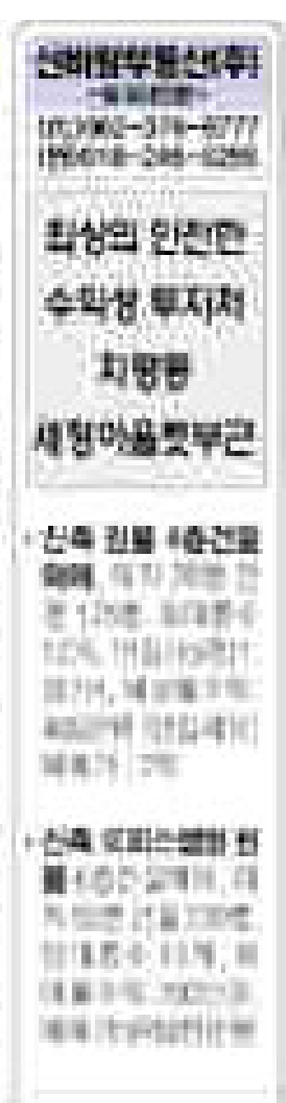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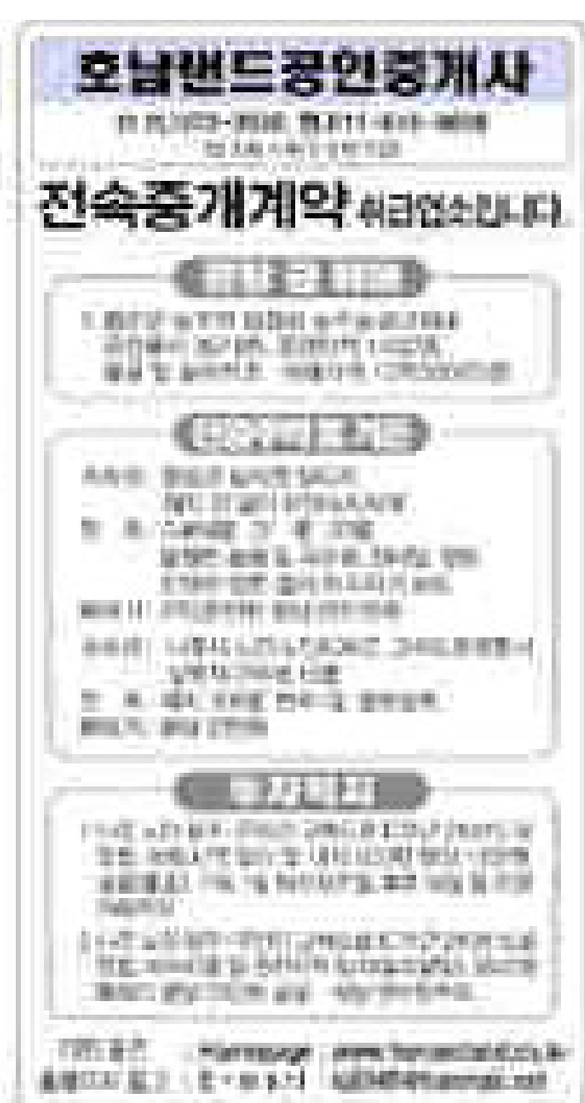
하지만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진짜 이유는 '초대받지 못한 작가'라는 사실이었다. "베니스가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비엔날레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녀의 당찬 일성(一聲)은 두고 두고 화제가 됐다.

지난 8일 '열풍변주곡'(熱風變奏曲)을 주제로 개막한 2006 광주비엔날레에도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계적인 미술평론가인 로버트 모건(61·전 뉴욕 프랫대학원 교수)이 그 주인공이다. 그가 누구냐면 아티스트이자 전시기획자로, 지난 2004년 대회때에는 당시 이용우 총감독의 초청을 받아 비엔날레 국제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 작년에는 조선대 미대 대학원의 초빙교수를 지낼 정도로 광주를 잘 아는, '지광파'(知光派)이다.

그랬던 그가 올해는 신분(?)이 확 달라졌다. 비엔날레 재단의 게스트가 아닌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자로 광주에 온 것이다. 그는 'VIP초청'(모든 방문비용을 재단에서 부담)이 여의치 않으면 초청장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재단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정작 그를 초대한 건 비엔날레 재단이 아니라 광주 국제교류재단이었다. 몇몇 인사들이 비용을 추렴, 대신 그를 광주에 초대한 것이다. 그는 방문기간동안 비엔날레 부대행사인 '미술오케스트라'에서 강연하고, 낸시 랭처럼 광주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예술의 거리에서 전시회도 갖는다.

로버트 모건의 예는 비엔날레 재단의 허술한 인맥관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단은 비엔날레 홍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총감독의 '추천'에 따라 외국의 미술계 인사와 저널리스트들을 초청한다.

헌데 이상한 건 이 초청자 리스트가 감독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대폭 바뀐다는 것이다. 물론 전시주제와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청자 면면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감독이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청장 하나 보내는 것까지 인색하게 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총감독 개인의 인맥은 남아도 재단의 인맥은 없다'는 비아냥은 그냥 귓등으로 넘길 얘기가 아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처럼 재단의 운영에도 변화의 '열풍'이 퍼지길 기대한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